

웅진, 폴리실리콘 투자자금 확보

미래에셋 사모펀드에서 1000억원 ... 2010년 하반기 5000톤 완공

웅진그룹의 태양광 계열사인 웅진폴리실리콘은 미래에셋파트너스 5호 사모펀드로부터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했다고 7월3일 밝혔다.

웅진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e)을 생산하기 위해 2008년 7월 설립됐으며, 경상북도 상주에 201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5000톤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고효율의 태양광발전 설비에 필요한 고순도 폴리실리콘에서 시스템까지 고부가가치 체인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03>